

# 토끼의 꽃가꾸기

정 춘 식

흰토끼는 이웃마을의 재토끼가 곱고 아름다운 꽃들을 잘 키운다는 말을 듣고 시샘이 났습니다.

《나라고 왜 재토끼만큼 꽃을 못가꾸고 꽃을 곱게 못 피운단 말인가? 이 흰토끼의 꽃가꾸기솜씨를 온 동산이 알게 할테다.》

흰토끼는 화분을 여러개 구해다놓고 꽃씨앗을 묻었습니다.

갖가지 꽃포기들이 푸르싱싱 잘 자라올랐습니다. 흰토끼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알뜰살뜰 꽃포기들을 보살피 주었습니다.

어느날 지나가던 재토끼가 들려 흰토끼네 꽃화분들을 보고 놀라와했습니다.

《흰토끼야, 꽃가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솜씨는 무슨 솜씨, 그저 잘되는구나 뭐.》

야옹이도 들려서 흰토끼를 칭찬했습니다.

흰토끼는 으쓱해서 두귀를 뺏뺏이 세우고 《꽃가꾸기란 별게 아니야. 남이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니. 애 야옹아, 꽃가꾸기를 배우려거든 모두 이 흰토끼를 찾아오라고 소문을 내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흰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것처럼 생생하고 곱던 꽃잎들이 생기를 잃고 시들시들해진것이 아니겠나요.

《어째서 그럴가. 이상하구나.》

가슴이 철렁해진 흰토끼는 재토끼를 찾아갔습니다. 재토끼네 꽃포기들은 푸르싱싱했습니다.

재토끼는 흰토끼를 따라 깡충깡충 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야웅이도 뒤따라오구요.

재토끼는 시들어버린 꽃송이들을 살펴보고나서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는 사발에 물을 담고 거기에 소금을 조금 넣고나서 휘젓는것이었습니다. 소금물이 다 풀리자 재토끼는 그 소금물을 꽃송이들에 조금씩 살살 뿌려주었습니다.

한참 지나자 흰토끼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재토끼야, 꽃잎이랑 꽃송이들이 살아났어. 이것 봐, 생생해진거. 거참...》

재토끼랑 야웅이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재토끼야, 꽃나무들도 짹짹한 소금을 좋아하는구나. 난 그런건 모르고 남이 하면 나도 하는줄 알았으니 참.》

야웅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리치와 묘리를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선 안되지.》